

교회 3대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로마서 3장 13절)

행인/이종운, 편집인/윤명식, 편집국장/손경수 발행소/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주간충현」신문사 소석관 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54-1615

교회설립기념행사 각위원회별 세부계획 발표

우리교회 설립 36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종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다.
교구별 찬송가 경연대회를 비롯하여 성경

암송대회, 선교옹변대회, 그리고 성극경연대
회의 세부계획안이 수립되어 각위원회별로
준비와 진행을 위한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

년령의 반에서 출전하여 대회에 참가한다.
성경암송대회 참가신청서 접수마감은 8
9년8월13일부터 9월17일까지 해당되는 각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진행부장: 정광호장로, 차장: 임무천집
사, 위원: 김구형집사, 박찬섭집사, 한일연집
사

참고로 이번 성경암송대회 심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성구암송대회 심사규정

대회 본부에서 선정, 임명된 심사위원이
아래의 득점 항목과 감점 항목에 의하여 개인
별 득점수를 계산하여 다수 득점자 순으로
입상자를 결정한다.

가. 득점항목

1) 암송 성구수: 성구 1구 암송에 5점씩
가산한다.

2) 열의 및 명확도: 열의는 암송자의 암송
에 임하는 태도와 암송 내용에 대한 공감
정도로 채점하며, 명확도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암송
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20점을 만점으
로 담당 심사위원의 판단으로 채점한다.(아주
못함 10점, 못함 13점, 보통 15점, 잘함 18
점, 아주 잘함 20점)

나. 감점항목

1) 오송: 본문 단어와 다르게 암송하는
것으로서 1회에 1점씩 감점한다.

2) 반복: 같은 본문을 연이어 두 번 이상
암송하는 것으로서 1회에 1점씩 감점한다.
(한 단어에 대하여는 오송 또는 반복 중 한
가지만 감점한다)

3) 상기: 암송 도중 암송할 본문을 잠시
잊어버리고 암송하기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5초가 지나면 담당 심사위원이 잊어버린
본문을 읽어주어 상기시키되 1회 상기에
1점씩 감점하고 12회까지 상기시켜 줄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암송을 중단시키고 그 전까
지의 득점 수만을 계산한다.

4) 2인 이상이 동점일 경우에는 암송 성구
가 더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동점이며
암송 성구도 같을 경우에는 감점이 적은 순으
로 결정한다.

합창 지정곡 542장 1절만

교구별 찬송가 경연대회

자유곡은 찬송가 및 복음송 중에서 1곡 1절만

찬송가 경연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원
선장로)는 교구별 찬송가경연대회 합창 지정
곡을 찬송가 542장(주여 지난밤 내꿈에) 1
절로 확정했다. 지난해(89년8월5일자)에 나간
446장은 잘못된 것으로 바로잡게 되었다.

그리고 자유곡은 찬송가나 복음송 가운데
서 1곡을 택하여 1절만 부르게 되었다.

오는 9월8일(토) 오후2시부터 갈릴리홀에
서 진행될 교구별 찬송가 경연대회는 전교구
(14개 교구)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합창
단 인원 수는 60명 이상 백명 이내로 구성되
록 감정 규정했다.

또 합창 이외에 중창도 참가신청서를 낼

수 있으며, 의무사항은 아니고 자원하는 교구
만 반드시 의견을 모았다. 충현성도들의 찬양
을 통한 일체감 형성,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
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회 당일의 프로그램에 의하면 2시부터
30분간 대회 개회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2시40분부터 5시30분까지 대회, 그리고 5
시30분부터 30분 동안 시상식 순서를 가질
예정이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준비위 측은 바라고
있다.

선교옹변대회

교육위원회 주관 선교옹변대회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엄필성장로)는 오는 9월24일
선교옹변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본교회 교회학교 중등, 고등, 대학, 청년
1, 2, 직전부 회원이 참가 대상인 선교옹변대

주제 ① 민족복음화, ② 공산권선교, ③ 세계선교

회는 옹변주제를 세 가지로 선정했다.

첫째 민족복음화, 둘째 공산권 선교, 셋째
세계선교이며 소요시간은 5분~7분 이내로
제한시켰다. 중등부와 고등부, 그리고 청년
에 해당되는 학생은 5분, 대학부와 청년1,
2부, 직전부는 소요시간이 7분이다.

참가할 학생들은 참가신청서 및 옹변원고
를 오는 8월27일까지 소정양식에 신청해야
한다.

동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실시계획 및
요령에 의하면 참가자는 제한된 시간 내에
청중에게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청중의
반응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순위를 결정

하며, 시상은 각 부별로 실시토록 했다.

1, 2, 3등 6명에게 각각 상장 및 부상을
주고, 그리고 장려상은 12명에게 시상하고,
기타 동원자(참가자 포함)에겐 참가 기념품을
전달기로 했다.

원고모집

「주간충현」은 성도 여러분들의 원고를
언제든지 접수합니다.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모든 내용을 투고
해 주시면 정성으로 편집 게재해 드리겠습니
다.

주간충현 편집국

성극경연대회

10월7, 8일 갈릴리홀에서

교육위원회 주관 성극경연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손경수장로)는 교회설립 36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성극경연대회를 개최한
다.

오는 10월7일, 8일 이틀간 갈릴리홀에서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될 성극경연대회는
본교회 교육위원회 산하 중등부 이상 부서의
학생들이 참가자격이 있다.

동 준비위의 세부계획에 의하면 개요에서
발한 목적에서 동 대회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회목표 제1항인「천국일꾼 양성」에 따른
교회학교 학생들의 신앙성장, 훈련 그리고
믿음의 진보를 극화를 이용하여 실천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며,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데 동 경연대회의 의의를 설명했
으며, 10월7일(토) 오후1시부터는 예선을,
10월8일(주일) 오후3시부터는 본선을 실시한

다.

동 성극경연대회 준비위원으로는 저도에
윤용규목사, 윤성철장로, 김환기집사, 양종섭
집사, 황의만집사, 이동명집사, 박영업권사,
이인선집사, 조혜순집사가 선임되었다.

성극 내용은 신구약성경의 사건, 인물중심
및 기독교 복음에 배치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하며, 소요시간은 15분이다.

참가신청서 접수는 8월27일까지 교육위원
회 103호이며, 구비서류는 참가신청서 1부,
대본(사본) 1부, 출연자 명단(스탯, 케스트
포함) 1부, 단, 본교회 등록교인으로서 소속
부서에 적을 둔 자에 한한다.

동 대회의 심사위원은 성극 및 연극분야의
사계 권위자를 위촉하여 심사케 되며, 대상
1팀(당회장상), 우수상 2팀(교육위원장상),
장려상 3팀에게 상패 및 부상이 있다.

이종윤 위임목사의 수요일예배 성경강해 시리즈⑥



본문 / 요 5:31-47

제판석에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같은 증언을 할 때 그 신빙성이

빛과 생명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윤택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① 예수님은 빛이다.

요 4장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인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생수는 생명도 되지만 어둠에서 살고 있는 여인의 눈을 뜨게 해 준 것으로써 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② 생명이다.

요 3장에는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했습니다. 거듭나면 새 생명을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시고,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성부 하나님께서 증거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이 오고 그를 바라보고 있어야 생명을 얻는다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인가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본문은 네 가지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성부 하나님의 증거

우리의 호흡이 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이라는 것이 나 자신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다고 했으니 그것이 확실한가에 대한 증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해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를 말하면 그것이 옳은 것 같고, 유교학자가 와서 유교를 말하면 그것도 옳은 것 같고, 도교학자가 와서 말하면 그것도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 중 가장 신빙성 있는

받음으로 인하여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③ 사랑입니다.

요 5장에는 38년된 병자가 나음을 입게 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는, 어둠에

'증거하러 왔다'고 번역되어 우리에게 보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요한에게 증거자로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강조하는 것은 증거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지 증거자(사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행위에 있는 것이지 요한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목사 개인은 존경의 대상이 못된다 할지라도 목사의 행위, 직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증거의 행위자로 보내신 사람이므로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여러 사람 앞에서 힐난을 받고 땅신을 당하면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므로 이 직임을 존중하여 여겨야 됩니다.

요한은 빛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다.

6장 16절 이하에는 물 위로 걸어가심으로 자연의 주되심을 보여주십니다. 9장1절 이하에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므로 세상의 빛이 되심을 보이십니다. 11장1절 이하에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영생은 무한한 시간(endless)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4. 성경의 증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5:39).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5:46).

그는 모세를 말합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신약도 예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선지자적인 증거로 구약의 증거입니다.

기적의 증거는 행위언어입니다. 요즈음 body Language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짓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말은 뱉어버리면 날아가 버리고 몸짓언어도 눈으로 보고 지나가 버리면 없어지지만 기록된 말씀은 우리와 늘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개와 같고 풀과 같이, 풀잎의 이슬 같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기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 증거를 확실케 가진 우리는 더 이상의 다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주되시고 심판자되심에 대한 증거는 네 가지가 되니 이 증거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타종교의 학설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이 네 가지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구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증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빛, 생명, 그리고 사랑

광명이 비치는 순간입니다.

10장,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13장에서는 제자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을 흔히 겸손의 모습이라 하지만 겸손 이전에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발까지 닦아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증거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임을 증거합니다.

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고, 행하기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도 보았습니다.

3. 예수님 자신의 증거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적을 통하여 증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役事, 곧 나의 하는 그 役事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요 5:36).

역사는 기적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work라고 하는데 기적, 사역을 말합니다.

2장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생명을 더 풍성케 하는 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5장에서는 베대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로 은혜와 구원의 크심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생명의 떡이 되심을 나타내며 배불리 먹이시므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본교회 제직사진첩 금년내로 발간예정
직분자 사진촬영 계속, 사진 안찍은 분 열람을!

본교회에서 펴낸 「제직사진첩」이 금년내로 발간을 앞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많은 직분자들(집사 이상)이 사진촬영에 협조해주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나 아직도 일부 직분자들이 사진촬영을 하지 않은 관계로 사진첩 발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오는 주일부터 본인 사진촬영 여부를 확인키 위한 열람을 실시한다.

본당 로비 입구 우측에 마련된 임시 사진촬영실에 들려 열람과 확인절차를 밟고, 만일 사진이 없을 경우 현장에서 촬영토록 배려했다.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구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증언은 역시 아버지되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는지 안 낳으셨는지 내가 아무리 소리쳐봐도 어머니, 아버지의 증거 보다는 불확실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구주이시고,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줄 아노라"(5:31-32).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37절).

아버지는 최초의 목격자입니다. 아버지가 그 일을 이루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십니다.

아버지의 증거는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독교는 예수님이 빛, 생명, 그리고 사랑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빛, 생명, 사랑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빛과 생명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 세례 요한의 증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눅 16:16).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 11:11에 보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초월하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된 사람은 모두 요한보다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3:28).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입니까? 요 1:7을 보니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하려 함이라"

여기 "증거하러 왔으니"는 헬라어로 '에이스'로서 into를 말합니다. 증거자로 온 것이 아니라 증거하러 온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증거자'로 번역이 되었으나 한글 성경에는

목회자세미나 제3학기 9월18일부터

한국교회 성장연구원 주관, 매주 월요일 충현교회 본당서

한국교회 성장연구원(원장: 이종윤목사)은 오늘 9월18일부터 제3학기 목회자세미나를 개강한다.

제3학기의 과목은 이종윤목사의 「성경적 교회론」을 비롯하여 이보민 교수의 「현대신학의 동향과 그 전망」외 9개 과목이 각 주제별로 강의케 된다.

지난 2학기엔 1,744명이 등록된 바 있는 목회자세미나는 한국교회의 교회갱신과 성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수준 높은 세미나 프로그램이다.

오는 11월2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2시부터 5시20분까지 진행되고 있는 목회자 세미나는 10주간 계속된다.

제3학기 목회자 세미나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년3부 14회 수양회 14~15일, 갈릴리홀서

교회 학교 장년3부(부장 마성락장로)는 제14회 여름 수양회를 8월14일부터 15일까지 본교회당 갈릴리홀에서 갖는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동 수양회에서는 장년기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본 수양회의 강사는 신복윤목사, 윤영탁목사이며, 장년3부 회원은 물론 비회원도 많이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다.

동 수양회 참가비는 1인당 5,000원이며

제3학기 세미나 프로그램 '89. 9. 18~11. 20(매주 월 14:00~17:20)

일 자 (매주월)	제 1 교 시 14:00 - 15:30	제 2 교 시 15:50 - 17:20
9월 18일	현대신학의 동향과 그 전망	이보민 교수 화관 칼빈신학대학원 신학박사 현 고신대학원 교수
25일	성경신학의 동향과 전망	권성수 교수 미국 웨스턴신학대학원 신학박사 현 충신대학원 교수
10월 2일	기독교 교육의 문제점과 대책	은준관 교수 미국 미시시피대학 신학박사 현 연세대 신과대학 학장
9일	칼빈의 신학과 목회	이형기 교수 미국 드류대학 신학박사 현 장신대 교수
16일	신학교육과 목회	김명혁 목사 미국아리카나신학대학원철학박사 현 합동신학교 교장
23일	신학과 이데올로기	김영한 교수 서독하이델베르크대학철학, 신학박사 현 숭실대 교수
30일	제자훈련의 원리와 방법	옥한흠 목사 미국 칼빈신학교 졸업 현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11월 6일	교회교육의 신학적 기초	정일웅 교수 서독 본대학 신학박사 현 충신대학원 교수
13일	기독교 교육과 목회	주선애 교수 미국 펜스대학 인문학박사 현 장신대영예교수
20일	웨슬레의 신학과 목회	조종남 교수 미국 에모리대학 철학박사 현 서울신학대학 학장

8월14일 오전 8시30분~9시까지 나오면 된다.

위임목사 동정

이종윤위임목사는 지난 7월24일 출국하여 24~28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세계 신약학회, 그리고 7월29일~8월2일까지의 세계복음서학회에 참석하여 은혜롭게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목사는 8월11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워싱턴 복음화대회 주강사로 말씀을 전하셨으며, 오는 15일 오후4시 델타항공편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본 교회에 도착하실 때까지 성도들의 계속적인 기도가 있기를 바란다.

교수선교회 창립총회 13일 오후5시 선교관 405호

본 교회 교수선교회가 창립된다. 8월13일(주일) 오후5시 선교관 405호실에서 개최되는 교수선교회 창립총회는 본 교회 등록교인 중 대학 전임강사 이상 교수들이 자격이 있다.

많은 참석을 바란다.

화장실 청소하는 권사들

권사들이 바쁜 시간의 틈을 내어 교회당 내의 화장실 청소를 기쁘게 하고 있다.

봉사하는 마음!

이것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 있을까?



「제자훈련」 모두가 참여해야 지난 1일부터 참가신청서 접수받아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교회는 1989년도 「제자훈련」을 실시한다.

금년도 주제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노라」이며, 오는 9월7일부터 11월17일까지 11차에 걸쳐 매주 목요일 저녁7시부터 금요일 저녁6시까지 23시간을 충현기도원에서 합숙하며 훈련을 받는다.

신임 임직자는 반드시 「제자훈련」을 받아야 하며, 금년도에 직분자 이외에 일반 평신도에게도 문호를 개방,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훈련개요

1. 목적

홍해작전, 여러고작전 그리고 시온성 대행진을 통하여 깨우친 영적 각성을 사명감으로 고취 함양하여 오직 말씀만, 오직 믿음만, 오직 은혜만의 행동원리로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을 사랑하며 온전한 제자로서 헌신하는데 있다.

2. 주제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이 되었노라」

(1) 주제성구: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엡 3:7)

(2) 주제찬송: 35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3. 훈련대상자

(1) 직분자 전원(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남·여 서리집사, 권찰, 교사, 찬양대원, '90년 신임임직자 후보전원)

(2) 평신도 중 제자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자

4. 훈련기간

(1) 1989년 9월 7일~11월 17일(매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금요일 저녁 6시까지)
(2) 찬양대원은 1989년 10월 2일~3일, 5일~6일에 실시

(3) 평신도: 1989년 11월 16일~17일

5. 훈련장소: 충현기도원

6. 훈련참가 신청: 신청서 양식

(1) 접 수 처: 소석관 103호(충현제자훈련

제자훈련 실시일정

차수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날 짜	8월 24-25	9월 21-22	9월 28-29	10월 2-3	10월 5-6	10월 8-9	10월 12-13	10월 26-27	10월 2-3	10월 9-10	10월 16-17
대 상	교역자	직분자	찬양대원	직	분	자					평신도

원)

(2) 등 록 비: 5,000원(충현 훈련복 별도 판매-8,000원)

(3) 신청일자: 1989년 8월 1일~9월 3일

7. 특기사항

직분자는 반드시 충현제자훈련을 받아야 하며 새해(1990년) 직분자 임명은 가능한 본 훈련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다.

성경연구원 학생모집 전교인이 등록하여 성경공부를!

• 제31기 교사양성부

- 1. 입학자격
(1) 충현교회에 등록된 자로 세례 받은 지 2년이상 된 자(타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제출)
(2) 만 20세 이상인 자
- 2. 입학절차
(1) 제출서류: 입학원서(성경연구원 소정양식) 1통, 증명사진 1매
(2) 원서접수 기간: 1989년 8월 13일(주일)~9월 1일
(3) 접수처: 성경연구원(소석관 103호)

※등록비 2,000원

3. 교육기간: 1989년 9월 3일~11월 26일 (총 13주)

• 1989년 2학기 주간성경공부

- 1. 입학자격: 충현교회 전교인(타교인도 가능함)
- 2. 입학절차: 교사양성부와 동일
- 3. 교육기간: 1989년 9월 4일~11월 17일 (총 11주)
- 4. 특 전: 10학점(1학점은 15시간) 이수자에게 졸업시 성경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구역장자격을 인정함

5. 시간표 및 강사

	오전반(10:00~11:30)	오후반(7:00~8:30)
월	최선의 삶(I)/김주아전도사	
화	크로스웨이 성경공부(1-2) 이조웅 전도사	신명기/이원길 목사
수		마가복음(III)/오후1:00~2:00 김학진 목사
목	룻 기/김해규 목사	크로스웨이 성경공부(2-2) 김경성 전도사
금	창세기/새벽6:15~7:15 이종윤 목사	

20세기 후반 행동신학이 교회 내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면서 선교학계에서는 교회의 본질과 규범에 관한 구별이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란 구속으로 회복된 세계에서의 하나님과 새인류 사이의 그것일 것이며(계 21:1-7) 또한 未救贖 세계에서의 전도자와 被전도자의 관계일 것이다.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의 선민과의 아름다운 관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민과 이방인의 전도관계로 발전했고, 그리스도와 사도들과의 친밀한 관계는 사도적 교회와 온 인류와의 혈육을 초월한 선교의 관계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도자와 피전도자, 선교국과 피선교국과의 관계는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기독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에 관한 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선지자처럼 '나를 보내소서'라는 충성된 일꾼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제 선교의 개념과 초대교회에서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간단하게 보고나서 선교 제2세기를 향한 한국선교의 비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선교의 개념을 살펴보자

선교란 라틴어로 Mitto「내가 보내다」라는 의미에서 온 것인데 헬라이로는 ἀποστέλλω라고 하며 선교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19C의 Gustar Warneck에서 부터였다.

A. 카이퍼 교수는 선교를 지칭할 때 '증가'라고 했고, D. 맥가브란은 '교회성장학'이라고 했으며 1952년에 열린 "세계선교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의미에서 Missio Dei라는 표현을 사용했다.(이 말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종래에는 선교를

인간중심의 사역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 선교라는 말 뜻은 "보냄을 받은 자"의 의미이므로 파송의식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선교사라는 의미도 초대교회에서의 '사도'라는 개념처럼 "세상에 보냄을 받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청지기적 사명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둘째, 초대교회에서의 선교

종교적으로 유대교는 처음부터 기독교를 하나의 새로운 종교로 간주하여 반대하였

다. 그러나 로마정부는 주후 60년경까지 기독교와 유대교를 동일시했으며, 따라서 유대교가 누리던 종교적 혜택을 동등하게 부여받았다. 그러나 로마정부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 숭배를 신앙의 본질로 삼았던 이 신앙 공동체를 차츰 종교적 내지 정치, 사회적 견지에서 이질적이고 위협한 존재로 보게 되었다. 그런데 로마세계에서 기독교와 동시에 유행했던 민중종교는 점성술 및 마술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종교이거나 신비종교였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마술을 마귀적인

교를 공인하면서 다시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 이미 유대교가 신 바벨론제국에 정복된 후 페르샤, 그리스, 로마 등의 대국들의 지배를 받아왔었고 오랜 전쟁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동력의 전력화로 불안과 공포감은 가속되어 갔다.

기원전 4세기경 알렉산더 대왕의 문화정책은 동방세계를 그리스화했는데 이를 '헬레니즘'이라고 한다. 그래서 헬라와 로마의 이질적인 문화가 유대의 모든 영역에 침투되고 있었다. 또한 팔레스틴에서 발생한 하나의 "새로운 종교"가 시리아와 로마를 비롯하여 소아시아, 애굽, 북아프리카 그리고 스페인에 까지 널리 신속히 퍼질 수 있었던 원인은 로마제국이 이뤄놓았던 평화 및 교통수단 때문이며,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헬라어가 유라시아 전역에 퍼졌으며, 그에 따라 구약이 BC 2세기경 희랍어로 번역되었고 신약이 희랍어로 기록되어 당시 누구에게나 쉽게 전달될 수 있었던 사실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의 전도여행에 그대로 이용되었고 초기 기독교 전반에 걸쳐서 적잖은 도움을 준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음호 계속)

최성철(청년2부 회원)

독자투고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에 비춰본 한국선교 2세기 ①

것으로 보아 정죄했으며, 신비종교 역시 기독교를 흉내낸 마귀적 소치로 보아 배격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전통적으로 숭배되어 온 무가치한 신들이나 신비종교들에 싫증을 느끼게 되었다. 헬라인들이 다신론에서 단일신론으로 사상발전이 된 것도 그런 이유였다.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당시엔 예루살렘으로부터 스페인에 이르는 지중해 연안에 복음전파되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는 것으로 통하였다. 또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다시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 이미 유대교가 신 바벨론제국에 정복된 후 페르샤, 그리스, 로마 등의 대국들의 지배를 받아왔었고 오랜 전쟁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동력의 전력화로 불안과 공포감은 가속되어 갔다.

구역예배를 위한

충천다락방

교구위원회 제공

제33과 예수님을 바라보자

성경: 히브리서 12:1-13

요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

찬송: 389, 399, 390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은 단순히 관망하거나 구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느끼고 생각하는 전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음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운동장의 관중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못하면 못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야유하는 것이 관중들입니다. 관중 없는 운동경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보는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심가 조심하면서 힘을 다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2.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지고 별할수록 얽혀져서 나중에는 벗어버릴 수도 헤어날 수도 없게 됩니다.

마 11:28절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하셨고 요일 1: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벗어던지기 어려운 무거운 죄는 주님께 맡기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3. 인내로써 우리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자기가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자기앞에 가로놓인 경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십자가를 참으신 인내입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의 잔을 마셔야했으며 이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내는 부끄러움을 참으신 인내입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인내는 배신을 참으신 인내입니다. 3절을 보면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죽이려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없으신 예수님을 죄인들이 심문하고 희롱하고 체찍질하고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권속 모두가 하는 것이며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 나가십시오. 이 경주에는 쉬운 어려움과 고통,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 참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생각합시다.

1.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3. 현재 나의 믿음의 경주는 어떠한가?

공동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머물렀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한 죄는 순간순간에 고백하여 용서함을 받게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